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의 석사과정
바이올린전공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용 상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의 석사과정
바이올린전공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Master's Degree Curriculum
Focused on the Violin Maj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or of Music and
Dance of Paris, and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2017 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용 상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의 석사과정
바이올린전공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지도교수 김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용 상

김용상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 선 대 학 교 교수 박 재 연 인

심사위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조 정 은 인

심사위원 조 선 대 학 교 교수 김 지 현 인

2017 년 6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3. 선행연구의 고찰	4
II. 고등음악교육기관: 한국, 프랑스, 미국	6
1. 음악원과 음악대학의 개념	6
2. 고등음악교육기관의 변천사	11
III. 바이올린전공 석사학위과정 비교분석	21
1.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21
2.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29
3.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35
4. 각 음악원별 비교분석	41
IV. 결론 및 제언	49
참 고 문 헌	51

표 목 차

<표 1> 한국의 대학 중 음악대학과 음악학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	8
<표 2> 프랑스의 대표 음악원	17
<표 3> 대학과 음악원이 연합한 학교의 예시	19
<표 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2년 과정 바이올린전공 교과목 일람표	24
<표 5>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사정 기준표	26
<표 6> CNSMDP ‘2er cycle supérieur’ 교과목 일람표	31
<표 7> CNSMDP 리사이틀 지정곡	32
<표 8> NEC ‘Master of Music’의 교과목 일람표	37
<표 9> 입학 자격요건 비교	41
<표 10> 외국어 능력평가 비교	42
<표 11> 전공입학 실기시험 비교	43
<표 12> 전공 관련 실기수업 비교	44
<표 13> 전공 관련 이론수업 비교	45
<표 14> 개설된 학위과정 비교	47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졸업증서 예시	28
-------------------------------------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aster's Degree Curriculum Focused on the Violin Maj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or of Music and Dance of Paris, and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Kim, Yongsang

Advisor: Prof. Kim, Ji-Hyun, Ph. 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urriculums of higher music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Korea,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or of Music and Dance of Paris, and New England Conservatory in the United States. For this purpose, the master's course of violin was researched among these schools' curriculums. This research also involved their entry requirements, curriculums and requirements for degree acquisition. In addition, it also described the concepts of conservatory and music college, which are higher music education institutions, and examined the history of higher music education institutions.

The method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evious studies were consider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Second, the internet data provided by their websit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ird, online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graduates through telephone and e-mail to gather the data on the requirements for degree acquisition. Fourth, their curriculum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onservatories and music colleges in each country,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also different.

Second, the names of master's degrees were different in each conservatory, but the entry requirements were similar.

Third, common practice classes and orchestra classes were regarded as very important and these classes were set as required courses, but other courses differed from school to school.

Fourth, the conservato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were often awarded degrees by collaborating with other universities in each city.

Fifth, the courses after the master's degree and the name of degrees varied from school to school, and thus their names were not unifi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hich dealt with the entry requirements and curriculums of the master's degrees and the present status of degree acquisition in the three conservatories, will be a useful basic data for students who plan to enter the master's cours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에 재학 중인 2015년에 제 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Międzynarodowy Konkurs Pianistyczny im. Fryderyka Chopina)’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였다(이데일리, 2015년 10월 21일). 또한 첼리스트 문태국은 미국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 재학 중, ‘2014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The International Pablo Casals Violoncello Competition)’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였다(한국경제, 2014년 9월 14일). 여기에 2015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Queen Eliz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에 재학 중인 임지영이 한국인 최초의 우승 소식을 알려왔다(연합뉴스, 2015년 5월 31일). 이들은 모두 음악대학이 아닌 음악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최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수상자들의 출신학교를 살펴본 결과 음악대학이 아닌 국내외 유수의 음악원 출신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유학을 통하지 않고 국내 고등음악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알려오는 연주자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개교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1995년 영국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The Menuhin Competition)’에서 3위를 차지한 바이올린리스트 민유경(오마이뉴스, 2014년 3월 28일)을 시작으로 제 15회 ‘리즈 콩쿠르(Leed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선옥(한겨레, 2006년 9월 24일)과 2008년 ‘롱티보 콩쿠르(Long-Thibaud Concours)’에서 우승한 바이올린리스트 신지아(매일경제, 2008년 11월 17일)가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피아니스트 손열음, 베이스리스트 성민제 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육만으로 해외의 유수한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과거 기존의 연주자나 연주전공 교수들이 해외 유학을 통해 이뤘던 성과들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김선옥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당시의 스승인 김대진 교수는 미국 줄리어드 음악학교(Juilliard School of Music)재학 시절인 1985년 ‘로베르 카자드쉬 국제 콩쿠르(Robert Casadesu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우승(뉴시스, 2016년 11월 17일)하였으며, 바이올리니스트 민유경과 신지아의 스승인 김남윤 교수 또한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1974년, 스위스 ‘티보바가 콩쿠르(The Tibor Varga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에서 우승(뉴시스, 2016년 9월 23일)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서양음악 본고장으로의 유학을 통해 음악적 해석이나 기량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 콩쿠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진의 지도가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국제 콩쿠르에서 최근 수상 소식을 알려오는 한국인 연주자들 중에는 해외 유학 대신 국내 음악대학 혹은 전공실기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음악원 출신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유학을 마쳤거나 국제 콩쿠르입상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국내외 콩쿠르에서 심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국내 실기 교수진에 의해 지도받으며 국제 콩쿠르의 입상 쾌거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고등음악교육기관이 해외의 그것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3년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개교 이후 더욱 두드러진 양상으로 보이며, 기존의 음악전공이 개설되어있는 대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실기 중심교육이 이루어낸 국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등음악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하여 프랑스의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과 미국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음악원의 입학과 졸업요건, 구체적인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콩쿠르의 수상자들을 배출하는 고등음악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공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석사과정 바이올린전공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연구이다.

첫 번째 학교로 선정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서양의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예술가를 양성하는 콘서바토리 체제로 개원한 한국 최초의 음악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과거 기존의 국내 음악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자, 교육자, 예술가의 구별 없이 학문과 실기가 뒤섞인 교육과정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국내보다 수준 높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찾아 해외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구제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 당시 문화관광부¹⁾ 소속으로 설립된 학교이다(김봉렬, 2015: 11).

두 번째 학교로 선정한 프랑스의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도중 당시의 여러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다. 프랑스의 문화부 소속 고등음악원에는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외에도 리옹의 국립고등음악원 또한 있으나, 유럽에서 설립된 최초의 음악원이자 현재 프랑스의 음악교육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고하여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을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음악대학 및 음악원 중 20개의 우수학교 선정 결과²⁾를 참고하였다. 그 결과 제 1위는 줄리어드 음악학교였으나,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는 음악원(Conservatory)이란 정확한 명칭을 학교이름으로 밝히고 있으면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선정하였다. 또한 1800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여러 음악원 중 대학에 합병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나라별 고등음악교육기관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원과 음악대학의 이론적 배경 및 차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음악원과 음악대학의 현황을 연구 하였다. 본문에서는 선정된 음악원의 입학요건, 교육과정, 졸업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임.

2) 미국 내 베스트 20위권 음악대학 및 음악원 순위를 참조하였음.

<http://www.thebestschools.org/rankings/20-best-music-conservatories-u-s/>

백은민(2005)은 서울 소재 9개 음악대학의 서양 음악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비교·연구하였다.

류홍신(2015)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 음악교육 시스템 비교 연구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중국 상하이음악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두 학교의 선발정책, 교육 프로그램, 교육성과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위처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음악원에 대한 비교 연구가 많지 않았고, 국내와 해외의 음악대학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국내외 음악원들의 입학과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 등을 알아보고, 학교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고등음악교육기관인 음악원과 음악대학의 차이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나라별로 고등음악교육기관의 변천사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음악원들이 교육적 특색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한국, 프랑스, 미국의 고등음악교육기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은 고등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이라 설명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장에서는 고등음악교육기관 중 현재의 음악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인 음악원과 음악대학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과 프랑스 및 미국 고등음악교육기관의 도입과 설치과정 등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음악원과 음악대학의 개념

1) 음악원(Conservatory)³⁾

보통 음악원은 ‘음악학교’ 혹은 ‘콘서바토리’라고 명명하는데, 음악예능 실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위키백과). 콘서바토리(Conservatory)의 어원은 이탈리아어의 ‘콘세르바토리오(conservatorio)’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유럽에서의 콘서바토리는 이탈리아의 나폴리(Naples)와 베니스(Venice)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어로 ‘콘세르바토리오’는 ‘일하는 집’이라는 의미이며, 당시 고아와 사생아를 수용하던 곳이었다. 예를 들면 Conservatorio Santa Maria di Loreto(1537), Conservatorio Sant`Onofrio a Capua(1576), 또는 Conservatorio De` Pouen At Gesu'(1583)등으로 불렸다(최시원, 1991: 12).

16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콘서바토리는 고아를 양육하는 수용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문 연주자가 되기 위한 음악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⁴⁾ 당시 고아들이 왜 연주가로서 훈련받도록 선발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가설이 난무할 뿐이다. 그 중 한 가지의 가설은 고아들에게 음악 실기교육을 시켜 관광객들 앞에서

3) 각 음악원들의 명칭은 나라와 시대별로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콘서바토리’로 통일함.

4) 근세 이전에 이루어졌던 초기 음악교육은 수도원이나 교회의 반주를 위한 연주음악을 교육하였으며 개인 레슨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류연수, 1995: 6).

연주하게 함으로서 관광객들로부터 현금 모금을 받아 고아원 운영에 보태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최시원, 1991: 13). 또한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음악을 가르쳤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박용수, 2008: 171). 이러한 이유로 17, 18세기의 이탈리아 출신의 널리 알려진 음악가들은 고아원 출신이 많이 있다.

근세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콘서바토리는 음악교육과 학교라는 조직을 결합시켰다.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인 비발디(Antonio Vivaldi)가 몸담았던 베니스의 피에타 콘서바토리(Ospedale della Pietà) 역시 오갈 데 없는 고아 소녀들을 보호하면서 음악을 가르쳤던 곳이다. 비발디는 이 피에타 콘서바토리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일하다가 합주를 담당하는 합주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합창장까지 겸했다. 비발디가 남긴 작품들 가운데 상당수는 피에타 콘서바토리의 재학생들을 위해 작곡된 것이다(매일경제, 2014년 1월 6일). 사실 집중적인 실기 훈련이 필요한 음악교육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같은 또래의 소년, 소녀들이 함께 생활해야하는 이런 환경이야말로 음악 실기교육의 가장 적절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홍승찬 2001: 82).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러한 콘서바토리는 17세기에 베니스, 나폴리 등에서 많이 성행하였고 1771년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에 이탈리아식 콘서바토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김서진, 1996: 4).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문적인 음악학교의 형태로 개교한 음악원은 프랑스의 파리국립고등음악원⁵⁾이며, 1795년에 설립되었다.⁶⁾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이 설립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전문적인 음악을 가르치는 콘서바토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체코의 프라하 음악원(Prague Conservatory)이 1808년에, 그리고 폴란드의 바르샤바 음악원(Warsaw National Conservatory)이 1821년에 설립되었다(박용수, 2008: 170-173).

5) 이탈리아의 콘서바토리는 고아원의 형태로 개교하였기 때문에 유럽 최초의 전문음악학교라는 학교의 목적 면에서는 파리 국립음악원을 유럽 최초의 음악원이라고 볼 수 있다.

6) 무용원은 1925년부터 시작되었다.

2) 음악대학

음악대학이란 음악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음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는 단과대학을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악대학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 예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7)에 따라 ‘대학’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예술대학은 다른 단과대학처럼 교육과정, 교양수업, 학점인정, 학위수여, 학생선발, 등록금 산정 등에 있어 같은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교육부령, 학칙 등으로 결정되어 있다. 예술대학 내 학과들은 전문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학칙에 따라 전공 실기 위주 교과과정을 편성한다(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4년 11월 9일). 우리나라의 음악대학은 일반대학교내 음악대학, 예술대학 음악학부, 예술대학 음악학과, 음악학부, 음악학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이은영, 2002: 19).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종합대학에 단과대학인 음악대학으로 속해 있는 대학과 학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다음 <표 1>과 같다(대학정보알리미).

<표 1> 한국의 대학 중 음악대학과 음악학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

구분	학교명
음악대학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음악학부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성대학교, 광주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진대학교, 명지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경대학교, 수원대학교, 신라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단국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음악대학 소속으로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7)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는 첫째, 대학, 둘째, 산업대학, 셋째, 교육대학, 넷째, 전문대학, 다섯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여섯째, 기술대학, 일곱째, 각종학교를 지칭하고 있다(전문개정, 2011.7.21.).

음악대학이나 단과대학에 속해있는 여러 학과들의 명칭은 학교에 의해 붙여진 이름일 뿐이고 교육기관마다의 다른 명칭상의 특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노원정, 2004: 80). 즉 학교의 규모나 입학정원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음악대학으로 격상된 것이고 소속대학에 따라서 음악학부나 음악과로 구별되어 있다(정해정, 2000: 11, 재인용; 김미숙, 1997: 14).

유럽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와 1212년 이탈리아 파두아(Padova)에서 대학이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음악대학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급속도로 확장되어 프랑스의 파리 대학을 비롯하여 유럽 곳곳에서 많은 대학이 잇달아 생겨나게 되었다. 이 때 유럽에서의 음악교육은 사교하는 음악(Musica Speculativa)이고, 다른 하나는 연주하는 음악(Musica Practica)두 개의 분야로 분리되어 있었다(류연수, 1995: 5). 이 전통은 지금도 유럽에서 지켜지고 있어 대학에서는 실기를 가르치지 않고 사교하는 음악만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서진, 1996: 3). 유럽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대학과 분리된 이유는 음악을 연주하는 기교와 기능을 배우는 것은 숙련하는 일이며 진리를 배우는 대학과는 구별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김서진, 1996: 4).

이러한 유럽의 전통에 따라 프랑스의 음악대학은 주로 이론을 위주로 교육한다. 즉 음악실기교육보다 음악학을 위주로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류연수, 1995: 11). 현재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은 파리 4대학인 ‘소르본 대학(Université de la Sorbonne)’이 있다. 소르본 대학은 1257년 ‘로베르 드 소르봉(Robert de Sorbon)’에 의해 신학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소르본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두산백과사전). 이외에도 파리 6대학인 ‘피에르 마리 퀴리 대학(Université Pierre-et-Marie-Curie)’에서 복수 전공으로 음악학 전공이 가능하며 파리 8대학인 ‘뱅센느 생-드니 대학(Université Vincennes Saint-Denis)’에 예술·철학·미학부 소속으로 음악 전공이 있다(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는 유럽의 교육제도가 미국 사회에 정착되어 그 이념과 기능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그것들은 유럽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학문으로의 음악’을 가르치는 종합대학내의 음악과와 실기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콘서바토리, 그리

Collection @ chosun

입학에 관한 것들을 모두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립대학의 입학 기준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입학이 허가 되지 않은 지원자들은 불합격의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김현명, 2008: 16). 그러나 법적으로 대학들이 지원자들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다중 지원의 비밀이 보장되며, 대학들의 입학에 관한 면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대학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전창훈, 2007: 113-114).

미국은 또한 독창적인 음악교육 감독기관인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⁹⁾이 존재한다(NASM). 이 기관은 1924년에 설립 되었으며 음악대학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의 비례를 규정해 주고 있다(문혜영, 2001: 47). NASM은 미국 내 전문적인 협회와도 긴밀한 협조 속에 운영되고 있는데 NCATE(전미 교사인증 협의회), AACSB(미국 경영대학 연합회), CMS(음악대학학회), MENC(전국 음악교육자 협의회), NTNA(전미음악교사 협회), NAMT(전미음악치료협회), AAMT(미국 음악치료 협회)등의 협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협회들은 NASM의 감독 하에 자신들이 속한 체제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음악대학들이 대학 스스로의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과 상반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박은정, 2006: 17).

2. 고등음악교육기관의 변천사

1) 한국

우리나라에서 서양악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80년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풍금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박지원은 중국의 천주교회당에 건립되어 있던 놀라운 서양의 악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가 서양의 음악과 악기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오현미, 2003: 318).

서양음악에 대한 교육은 기독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884년 경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음악이 유입되었으며, 서양음악의 교

9) 이하 ‘NASM’이라 칭하겠음.

육 또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한겨레, 2017년 4월 27일). 천주교의 유입과 함께 가톨릭 성가가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으리라 추정하기도 하지만 악보도 남아 있지 않고 그 자취나 영향을 찾기가 힘들다(한겨레, 2017년 4월 27일). 또한 천주교는 양반계급, 즉 당시의 세도정당인 상인들에 의해 수입되었고 주로 지식인층들 사이에서 전파된 반면에, 개신교는 처음부터 평민층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당시 음악문화와 음악교육에 개신교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오현미, 2003: 318-319).

개신교의 의료선교사 호레이스 뉴턴 알렌(Horace, Newton Allen)에 의해 찬송가가 도입되면서 서양음악은 ‘창가(노래)’의 형태로 들어왔다. 찬송가는 예배당¹⁰⁾ 외에도 선교사들이 세운 국내 교육기관¹¹⁾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졌고, 후에 노래의 반주 역할을 하는 악기로 코르넷과 풍금이 들어왔다(백은민, 2005: 8, 재인용; 윤혜경, 1987: 49). 하지만 이것들이 음악교육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개화한 지식인들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찬송가를 부르는 등 대상이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만한 학교나 교사, 기타 여러 제반 여건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찬송가를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음악교육으로 볼 수 없다(오지선, 2003: 9). 다시 말해 이 당시의 음악교육은 학교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보다는 오히려 당시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니 일종의 사회교육 형식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백은민, 2005: 8, 재인용; 이유선, 1985: 292). 또한 교회를 통한 음악교육은 의도적인 서양음악의 수입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전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서양음악교육이 시작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오현미, 2003: 319).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서양음악교육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최초의 군악대가 1901년 3월 14일에 창설되었다. 독일의 음악가인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는 독일식 음악교육 방법을 통하여 군악대 창설 6개월 만에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었고(오현미, 2003: 320), 매주 목요일마다 파고다 공원의 야외연주를 통해 일반

10) 1887년경부터 새문안장로교회와 정동감리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찬송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오르간과 간단한 음악이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오현미, 2003: 318)

11) 1886년 이화학당, 1886년 배재학당, 1886년 경신학교 등 1910년 2월까지 기독교계 각 종파에서 796개의 학교를 설립하였다(조효섭, 2007: 18-27).

시민들이 서양음악과 가까워지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20여종의 많은 관악기도 이때 처음으로 들어왔다(오현미, 2003: 321).

음악교육이 학교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점은 조선이 일제 치하로 들어가게 되는 1910년 이후의 조선 총독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전반적인 교육체계가 일본식으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공적인 음악교육의 시작은 조선총독부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오지선, 2003: 9-10). 음악교사 양성교육으로는 1901년에 만들어진 군악대가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군악대에서 사용된 악기는 휘문중학교에 기증되었고, 훈련받은 대원들이 각 학교로 흩어져 음악교사로 활동하였다(오현미, 2003: 321).

일제의 해방이후 미군정 통치에 의해 미국 교육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초·중·고·대학의 학제가 6·3·3·4년으로 구성되는 등의 학제개편이 있었고(이연경, 1997: 56),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자 대학에 예술교육 관련학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음악학파가 설치된 이후(백은민, 2005: 8, 재인용; 소윤영, 1993: 8) 1945년에 작곡가 현제명에 의해 경성음악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서울대학교에 흡수되었으며(최시원, 1991: 17) 1963년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가 음악대학으로 승격 되면서 교회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대학교육 중심의 본격적 교육과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해를 거듭할수록 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1970년도 중반까지 30여개의 음악학교가 생겨났다. 이후 산업과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음악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백은민, 2005: 8, 재인용; 소윤영, 1993: 8).

1990년대의 음악대학내의 교육은 주로 영·미권에서 발전된 종합대학의 유형으로 ‘교양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종합대학에서의 음악교육은 단과대 차원에서 이뤄지며 학생들은 실기과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양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했다. 이는 프랑스의 ‘국립고등음악원’처럼 교양교육을 배제한 채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유럽 국가의 고등음악교육기관들과 구별되었다(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4년 11월 9일). 이러한 실정에 대한 비판으로 전문적인 음악인을 키워내기 위해 실기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음악원 즉 콘서바토리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예술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3년 3월8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콘서트바토리 체제로 개원함으로써 한국에도 최초의 음악원이 세워지게 되었다(백은민, 2005: 8, 재인용; 김서진, 1996: 1).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은 1990년 6월 당시 문화부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국립예술학교의 설립계획을 공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12월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¹²⁾을 제정하였고 1992년 1월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 10월에는 직제 확정, 11월에 초대 교장으로 이강숙 교수(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가 취임함으로써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겨났다. 이듬해 3월 음악원과 부설기관으로 한국예술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94년 연극원, 1995년 영상원, 1996년 무용원, 1997년 미술원, 1998년 전통예술원이 차례로 개원함에 따라 현재의 6개원 체제가 완성되었다(김봉렬, 2015: 11).

현재 한국에서 고등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학의 경우, 종합대학 내에 있는 단과대학으로의 음악대학이 있고, 종합대학 내에 예술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음악학부 또는 음악학과가 있으며 사범대학에 부속되어 있는 음악교육과, 예술학교에 음악관련 학과 또는 음악 학부가 있다(류홍신, 2015: 10). 음악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으며 1998년 3월 학점은행제¹³⁾가 시행되면서 대학부설음악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정부 관련기관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 프랑스

프랑스 고등음악교육기관의 발전은 1789년부터 1794년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혁명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혁명기의 음악활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음악적 내용도 이전 시대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악기들이 새로 개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음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새로 개발된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가들과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음악을 작곡할

12) 대통령령 제13528호

13)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서영경, 2008: 4).

작곡가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전의 도제교육만으로는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좀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음악교육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의 혁명정부가 교육제도에 직접 개입하였고, 여러 형태의 국립음악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프랑스의 음악교육기관이 완전히 국가와 시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교육정책에 혁명기 당시의 음악가¹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결과 1795년 파리국립고등음악원과 이것의 전신인 국립음악연구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민은기, 1997: 70-71).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설립 목적은 당시 제1공화정이었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공행사와 연주회에 필요한 음악인을 양성하는 데에 있었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이 정치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된 것은 19세기 초 케루비니(Luigi Cherubini)가 원장으로 부임한 후부터였다(박용수, 2008: 170-173).

이러한 혁명기에 이루어진 음악교육에 대한 개혁은 이후 200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음악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가가 음악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음악가의 양성을 책임지며 관리하는 것은 음악교육제도의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민은기, 1997: 73). 또한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은 미국의 줄리어드 음악학교와 커티스 음악원(Curtis Institute of Music)의 설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두 학교가 설립될 때에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모델로 삼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교수진의 상당수가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출신이었다(박용수, 2008: 185-186).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교육제도의 기본 골격은 1789년의 혁명에서 고취된 핵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유, 교육의 무산성, 종교의 중립성, 교육의 의무성, 국가에 의한 자격증과 학위수여로 정립되었다. 이 원칙은 모든 수준의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한대호, 2005: 7). 이러한 기본 특징들을 바탕으로 현재 프랑스는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

14) 그레트리(Andre Gretry 1741-1813), 메울(Mehul Etienne 1763-1817), 르 쉬에(Jean-Francois le Sueur 1760-1837), 고쎽(Fracngous-Joseph Gosséc 1734-1829) 케루비니(Luigi Cherubini 1822-1842)

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학 외에도 각종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고등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원윤수 외 1인, 2002: 3). 프랑스의 학생들 중 약 절반의 학생들이 국립대학에서, 나머지는 각종 학교 및 기타 전문 기관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교육기관들로 인해 고등교육구조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만큼 고등교육기관의 폭이 넓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프랑스에서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크게 고등교육부소속의 국립대학과 문화부소속의 전문 교육기관의 두 종류로 나뉜다. 대학의 경우 이론수업과 연구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실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음악원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선택하게 된다(김현명, 2009: 24). 다시 말해 대학에서는 음악사나 음악미학 등 음악의 학문적 연구 분야만을 담당하고 실기분야는 전적으로 음악원에서 담당한다(김민, 1992: 35). 음악학 전공이 있는 대학은 대표적으로 파리 4대학인 소르본 대학이다. 현재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학생들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소르본 대학과 공동학위수여가 가능하다. 또한 파리지립음악원(CRR de Paris)과 블로뉴음악원(CRR de Boulogne Billancourt)에는 소르본 대학과 공동 과정으로 ‘DNSPM’과 ‘Licence de musique etmusicologie’를 수여받을 수 있는 3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콘서바토리는 프랑스어로 콩세르바투아(Conserbatoire)로 불리며, 그 중 파리와 리옹의 국립고등음악원(CNSMD)은 문화부 직속기관이다(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파리와 리옹 이외에 프랑스의 대표 음악원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프랑스의 대표 음악원

구분	학교명
국립	•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Paris(CRR de Paris) •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Lyon(Conservatoire de Lyon) • Conservatoire national de régional de Toulouse(CNRT) •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Aubervilliers- La Courneuve •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Boulogne-Billancourt (CRR de Boulogne-Billancourt) •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Strasbourg •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Tours (Conservatoire Francis Poulec)
사립	• É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ENMP)

이외에도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CRR)',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départemental(CRD)'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communal ou intercommunal(CRC/CRI)'의 이름으로 지역별로 380여개에 달하는 국공립 음악원이 있다(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프랑스 국립음악원은 지원자들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의 피아노전공의 경우 실질적으로 20살이 넘으면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김동준, 2004: 51).

프랑스의 음악교육은 그 주요 목표가 전문적인 연주가를 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류연수, 1995: 11).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실시해 왔던 개인교습방식을 주요 교육방식으로 정하고 여기에 다양한 기초 음악이론을 끊임없이 재교육하면서 고도의 실기교육에 충실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민, 1993: 35). 또 다른 특징은 학기별 학습진도의 평가가 전공 학과의 실기시험과 콩쿠르에 의해 행해지고, 졸업 시에 수여되는 학위도 콩쿠르성적에 따라 등급에 나누어져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규정된 학점만 모두 취득하면 학위가 수여되는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경우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김민, 1993: 35-36).

3) 미국

수년 전 처음으로 인디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래로 음악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Hoffer, 1983: 272). 미국 음악교육의 발전은 국토의 변화, 문화의 변화와 함께하였다. 초기 음악교육의 내용은 주로 교회음악에 한정되었다. 첫 번째의 음악지도를 위한 책은 교회 목사인 존 터프츠(John Tufts)에 의해서 출간되었는데, 그는 18세기 초반에 교회에 다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시편과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했다(Hoffer, 1983: 272). 이 시기에는 많은 학교들이 예배를 위한 음악교육을 주로 하였는데, 이는 교회 예배를 보다 음악적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후 유럽의 교육제도가 들어와 고등음악교육기관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대학은 기존에 있던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과는 별도로 음악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음악학교를 포함한 초기 고등교육기관의 대다수는 뉴잉글랜드(New England)지역에서 시작하였고, 19세기동안 미국 전역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1833년, 로웰 메이슨(Lowell Mason)과 조지 제임스 웹(George James Webb)이 최초의 고등 음악 교육 학교인 보스턴 음악 아카데미(Boston Academy of Music)를 설립하였다(Bestcollegereviews). 이후 음악원의 경우 오벌린 콘서바토리(Oberlin Conservatory)가 1835년에 설립되었으며, 1837년에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 보스턴 콘서바토리(Boston Conservatory of music), 신시내티 콘서바토리(Cincinnati Conservatory of Music)가 문을 열었다. 이들 학교의 교수들의 대부분은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최시원, 1991: 11). 대학의 경우 1880년에 최초로 미시건 대학의 음악대학이 설립 되었고(이연경, 1997: 57), 19세기 말부터 미국 전역의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에 음악대학 제도가 정착하게 되어 이 시기에 아이오와 대학(University of Iowa), 오리건 대학(University of Oregon), 오클라호마 대학(University of Oklahoma),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등이 설립되었다(정해정, 2000: 8, 재인용; 양은주, 1992: 22-23).

미국의 대표적인 고등음악교육기관인 콘서바토리는 음악대학보다 규모는 작지만 성

한편 20세기 초의 미국의 급속한 학위제도의 변화와 경제 대공황은 음악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음악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거나, 대학에 합병되거나, 대학과 연합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양상으로 나아갔다(이영애, 2003: 48). 대학과 음악원이 연합한 학교의 예시는 다음 <표 3>과 같다.

시기	음악원	합병된 대학
1850년	오벌린 콘서바토리 (Oberlin Conservatory)	오벌린 대학 (Oberlin College)
1921년	이스트만 음악학교 (Eastman School of Music)	로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Rochester)
1955년	신시내티 음악학교 (Cincinnati Conservatory of Music)	신시내티 대학 (University of Cincinnati)
1986년	피바디 음악원 (Peabody Conservatory)	존스홉킨스 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

Collection @ chosun

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줄리어드 음악학교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처럼 독자적으로 학위를 주는 고등음악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최시원, 1991: 14).

III. 바이올린전공 석사학위과정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바이올린전공 석사학위과정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즉 입학요건, 교육과정, 학위취득요건을 각 학교의 요람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는 전공실기과목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그 외의 필수 교과 등을 고찰한다. 학위취득 요건에서는 졸업연주부분을 특히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각 음악원에는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학위 이외의 여러 학위가 존재한다. 이것들을 각 음악원별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의 원어명과 한국에서 통용되어지는 이름으로 정리하였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한국에 유일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학요건과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에 관하여 본 연구자는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규정과 2017학년도 입학정보 등 최신의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겠다.

1) 입학요건

한국 예술종합학교의 석사과정인 ‘예술전문사’ 과정은 2년, 3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과정은 분명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¹⁵⁾. 2년 과정은 ‘Master of Arts’과정으로 석사학위에 준하며 3년 과정은 ‘Artist Diploma’¹⁶⁾과정으로 미국의 연주자 과정의 학위명과 동일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전문사’ 2년 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15) 본문에서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2년 과정에 대해서만 자세히 언급하고, 3년 과정은 석사학위 외에 개설된 학위과정에서 따로 소개하겠음.

16) 영문 학위 명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규정” 중 ‘학위 및 증서 수여 규정’에 근거하였음.

이루어져있으나 음악원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일반전형에는 10월 입시와 11월 입시가 있으나 음악원은 전체 전공이 10월 입시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

(1) 입학 자격 및 모집단위

지원자의 자격은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외국에서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자, 기타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또한 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학교의 ‘학칙 제65조’의 이중학적 금지 규정에 따라, 입학 이후에는 이중학적이 불가능 하며 기존에 다니던 대학원의 학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 후에 제적 처리된다.

음악원 ‘예술전문사’ 2년 과정의 바이올린전공은 기악과 기악전공으로 모집 단위가 정해져 있으며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하프, 기타)전체로 9명을 모집한다.¹⁷⁾

(2) 입학서류

지원자들은 출신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통,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영문(한글)증명서를 원본과 사본1부씩, 비영문(비한글)증명서는 해당증명서 원본과 한글(영문)번역본을 현지 한국공관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 공관에서 공증 받은 후, 각 원본과 사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곡 양식을 참고하여 자신이 연주할 시험곡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수험생이 제출한 입시 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3) 입학 실기 시험 곡

음악원 ‘예술전문사’ 2년 과정의 바이올린 지정곡은 아래와 같다.

17) 2017년 신입생 모집 요강 기준

첫째, J. S. Bach의 무반주 소나타(Sonata)나 파르티타(Partita) 중 2개 악장을 연주하는데, 느린 악장 한곡과 빠른 악장 한곡을 연주하여야 한다.

둘째, 19세기 이후의 협주곡(Concerto) 중 1곡에 대해 전 악장을 연주한다.

위의 첫째와 둘째 악곡을 모두 연주하여야 하며,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기 시험은 전체 시험 비율 중 90%를 차지한다.

(4) 전공시험 이외 시험

지원자들은 전공실기시험 이외에 음악이론과 음악분석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2개의 시험은 전체 시험 비율 중 10%를 차지한다.

(5) 합격자 선발 방법

합격자는 전공별 모집단위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시험성적에서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입학전형성적은 지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입학전형성적에서 학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가 최종합격 한 후 휴학이나 자퇴, 학점미달 등으로 신입생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또한 신입생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도 합격이 취소된다.¹⁸⁾

2) 교과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과과정은 학칙 ‘제2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18) 이 외의 입학취소 사유는 입학원서 접수 후 지원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원 자격 미달로 접수가 취소되고, 추후에 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된다. 예를 들어 입학원서의 허위 기재, 구비서류의 변조, 타인의 작품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재학 중 이러한 사실이 들어날 때에도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입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합격·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입시연도 및 다음 2개 연도에 입학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제한을 받는다. 또한 시험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에는 타 과목 성적 여부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음악원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치르고 음악이론과 음악분석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 교과과정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편성되며, 학칙의 부속규정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또한 교과과정은 ‘예술사’ 과정과 ‘예술전문사’ 과정으로 구분하는데, 학칙상의 의한 각 원·과·전공 단위별로 편성된다.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각 원별로 정하는데, 교과목은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음악원의 ‘예술전문사’ 2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 이상인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술전문사’ 2년 과정의 바이올린전공 교과목 일람표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2년 과정 바이올린전공 교과목 일람표

학과	이수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기악과 (바이올린)	전필	1~2	1, 2	바이올린전공실기	3	1	
		1~2	1, 2	오케스트라	2	4	
	전선	1~2	1, 2	현악양상블	2	2	
기악과 (전체)	전선	1~2	1, 2	서양음악사 1~2	2	2	3년과정 개설 (합반운영)
		1~2	1, 2	20세기서양음악 1~2	2	2	
		1~2	1, 2	음악분석및해석 1~2	2	2	
		1~2	1, 2	논문 1~2	1	1	
		1~2	1, 2	실내악문헌세미나 1~2	2	2	건반제외
		1~2	1, 2	관현악문헌세미나	2	2	건반제외
		1~2	1, 2	실내악	1	1	오르간, 하프시코드 전공 제외
		1~2	1, 2	창작곡연주	1	0	
전학과 (공통)	전선	1~2	1, 2	이태리어 1~2	2	2	
		1~2	1, 2	독일어 1~2	2	2	
		1~2	1, 2	신체훈련	2	2	2회 수강가능
전학과 (공통)	일선	1~4	1	음악교육론	2	2	2015신설 문화예술교육사 음악분야 교수역 량 2) 교과목
		1~4	1	음악교수학습 방법	2	2	
		1~4	1	음악감상 및 비평	2	2	
		1~4	2	창의적 방법을 통한 음악 교수법	2	2	
		1~4	2	음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2	2	

위의 <표 4>에서 이수구분 분류의 ‘전필’은 전공필수과목으로 학과 및 전공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인데, 이는 전공의 전문교육을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전선’은 전공 선택과목으로 학과 및 전공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이다. ‘일선’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학과 및 전공에 관계없이 수강 가능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수 가능한 과목이며 전공이수에 필요한 교양지식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한다.

교과목 일람표에 따르면 바이올린전공실기과목과 오케스트라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바이올린전공실기의 실기시험은 매 학기마다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어있다. 실기시험은 매학기 말에 치르게 되며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통해 학생의 자유곡으로 준비한다. 보통 3곡 정도를 준비하며 주로 N. Paganini의 Caprice 중 1곡, J. S. Bach의 무반주 Sonata, Partita 중 2악장, 협주곡 전 악장, E. Ysaÿe의 무반주 Sonata, 그 외의 소품 중에서 골라 준비한다. 시험곡은 암보가 원칙이고 끝까지 켤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전공 교수를 포함하여 대략 8명이 심사를 하게 되며 대표 교수가 종을 치는 것으로 중간에 끊을 수 있다. 오케스트라 수업은 ‘예술사’ 3, 4학년과 같이 수업하며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가는 출석에 의해 대체로 결정된다.

3) 졸업요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졸업 관련규정은 학칙 ‘제4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칙 ‘제49조(과정이수 학점)’, 학칙 ‘제57조(예술사과정의 졸업)’, ‘제58조(예술전문사과정의 졸업)’, 학칙 ‘제60조(성적평가)’, 학사내규 ‘제47조(졸업(수료) 사정)’, ‘제48조(졸업수료증서 수여대상)’, ‘학위 및 증서수여’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졸업사정 기준표¹⁹⁾는 다음 <표 5>와 같다.

19)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 규정 <3-15. 학위 및 증서수여 규정>을 참고하였음

<표 5>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사정 기준표

구분	내용
수업연한 충족기준	• 2년 과정 : 2년 이상 • 3년 과정 : 3년 이상
재학연한 초과 여부	• 수업연한의 2배 • 재학 연한을 초과한 전문사 수료생 중 졸업 시험 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재학연한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졸업학점 취득 여부	• 2년 과정 : 36학점 이상 • 3년 과정 : 60학점 이상
필수과목 이수 여부	• 공통필수, 전공필수과목 이수
학기당 취득학점 적정 여부	• 12학점 이내
성적 평점평균 충족여부	• 전교과목 성적평점평균 2.4 이상 • 음악원은 전공실기과목 성적평점평균도 2.4 이상
졸업시험 통과여부	• 급(S), 낙(U)으로 판정 • 졸업 시험 결과물 제출 여부 확인
졸업사정 유의사항	• 원별 사정위원회 개최, 졸업사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심사 • 교과과정상 필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등 •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에 유의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전문사’ 2년 과정은 수업연한 2년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인 4년이다.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을 모두 채웠을 때에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올린전공실기’의 실기시험성적 평균이 2.4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위 및 증서수여 규정’ 중 ‘제3조(졸업시험)’에 따르면 졸업시험을 치러야만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졸업시험은 학과와 전공에 따라 실기발표(연주, 공연), 작품발표, 졸업논문, 현지(또는 실험)실습보고서 등으로 대신한다고 되어있다. 바이올린전공은 실기발표(연주, 공연)²⁰로 졸업시험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학위 및 증서수여 규정’에 중 ‘제3조(졸업시험)’에 의하면 졸업연주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중 위원장(주심) 1인을 둔다. 다만 여기에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졸업연주는 사전공고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학생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장이 이를 허가할 때에만 가능하다. 졸업연주의 소정의 결과물을 소정의 기일 내에 예술정보관에 제출하고 제출확인서를 받아 소속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든 졸업생들은 졸업연주를 하여야 하며 졸업연주 곡목은 지도교수나 강사와 상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연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홀’에서 이루어지며 대개 한 시간 내외의 프로그램으로 연주하고 연주 당일에 한해 1회의 리허설을 허락하고 있다. 연주에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채점을 하게 된다. 연주는 DVD를 통해 녹화를 하며 녹화 본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졸업연주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채우게 되면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예술전문사’증서의 예는 다음 [그림 1]²¹⁾과 같다.

20) 이하 ‘졸업연주’라 칭하겠음.

21)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 규정 <3-15. 학위 및 증서수여 규정>을 참고하였음.



[그림 1]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졸업증서 예시

4) 석사학위 외 개설된 학위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사(예술사, Bachelor of Arts), 석사(예술전문사, Master of Arts)학위 이외에도 여러 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전문사’에 3년 과정인 ‘독주자 전공’ 과정이 있으며 졸업 시 ‘Artist Diploma’학위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오케스트라 전공’ 과정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스트라 과정 졸업시의 학위 또한 ‘Artist Diploma’이다.

2. 파리고등국립음악무용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²²⁾

프랑스 최초의 국립 음악원인 ‘파리고등국립음악무용원’의 입학요건과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에 관하여 본 연구자는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규정과 2013~2017학년도 입학정보 등 최신의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겠다.

1) 입학요건

CNSMDP의 2년제 석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2er cycle supérieur’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 음악원의 3년제 학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1er cycle supérieur’를 이수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 혹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CNSMDP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입학시험 자격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 2016~2017년 에는 26세 이하(1990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지원자만 가능하다.

지원자들 중 CNSMDP와 리옹국립고등음악원에서 DNSPM²³⁾을 평점 ‘최상’이나 ‘상’으로 이수한 경우, 혹은 평점 ‘중’이지만 관정단이 기말 시험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 없이 석사 프로그램의 입학이 가능하다.

(1) 입학서류

프랑스 혹은 외국의 학교에서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학위의 사본과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에 학사를 취득할 예정자는 학위 취득 예정서와 함께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여 입학 선발 시험 서류를 제출하여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선발 시험에 합격한 후 첫 수업 예정일인 9월 30일까지 학위가 확인 되지 않으면 입학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프랑스 이외 국가의 지원자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언어 능력 평가 중 B1에 해당되는

22) 이하 ‘CNSMDP’ 라고 칭하겠음.

23) 음악전문고등국가자격증

증명서를 2016~2017년 입학시험 기준으로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이후 12월 31일 이전까지 B2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학 실기 시험 곡

지정곡은 2016~2017년 입학시험 기준으로 L.van Beethoven의 협주곡이며 여러 개의 카덴차 중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의 카덴차²⁴⁾를 연주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곡 이외에 총 20분 이내의 스타일이 다른 곡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정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입학시험 도중 판정단이 중간에 연주를 중단할 수 있다.

(3) 전공시험 이외 시험

지원자의 동기를 알 수 있는 프랑스어 인터뷰가 15분 정도 진행된다.

(4) 합격자 선발 방법

학교 내부의 판정단에 의해 지원자의 학사학위와 이력서 등을 참고하여 예비 선발되며 실기시험과 프랑스어 인터뷰를 통해 최종 입학이 허가된다.

2) 교육과정

다음의 <표 6>은 CNSMDP의 2년제 석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2er cycle supérieur’ 과정의 교과목 일람표²⁵⁾이다.

24) 베토벤은 카덴차를 남기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요아힘(Joseph Joachim)이나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가 작곡한 카덴차를 주로 사용하여 연주한다.

25)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Guide de l'eleve - Edition 2013-14를 참고하였음.

<표 6> CNSMDP ‘2er cycle supérieur’ 교과목 일람표

Disciplines	Crédits ECTS	nombre d'heures de cours par semaine	Durée	Evaluation
<i>Discipline principale</i>				
Instrument	78	de 1 h à 2 h en moyenne	2 ans	1 récital chaque fin d'année
<i>Disciplines complémentaires imposees</i>				
Orchestre	12	0 à 18 h	2 ans	Attestation
1 discipline au choix	4	variable	1 ou 2 ans	Certificat ou Attestation
<i>Disciplines transversales imposees</i>				
Méthodologie de recherche	3	3 h	1 semestre	Attestation
Travail d'étude personnel	9	variable	3 semestres	Certificat
Aspects pratiques du metier	2	0 à 3 h	1 an	Certificat
Initiation a la Pédagogie	4	0 à 12 h	1 an	Attestation
Langue vivante	2	1 h 30	1 à 2 ans	Certificat
Mise en situation professionnelle	6	variable	1 ou 2 ans	Attestation

<표 6>에 따르면 석사과정의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이다. 전공실기(Instrument)와 오케스트라(Orchestre)과목이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이며 그 외 ‘Méthodologie de recherche’, ‘Travail d'étude personnel’, ‘Aspects pratiques du metire’, ‘Intiation à la Pédagogie’, ‘Langue vivante’, ‘Mise en situation professionnelle’ 과목이 있다.

(1) 전공실기

전공실기 수업은 78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술적 성향개발과 자율적으로 독주회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개발, 개인 연습을 하는 동안 예술적 견해를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전문성 있는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교수별로 10명에서 12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의 수업을 1회는 교수와, 1회는 어시스턴트(assistant)와 함께 진행한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리사이틀과 중간 평가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중간 평가시험은 학사 과정의 중간 시기에 시행하며, 학사 첫 해에는 약 20분 정도, 두 번째 해에는 약 40분가량의 연주로 평가한다. 석사과정의 첫 해의 리사이틀은 약 30분에서 45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의 상의로 결정되며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정하여 시험 3주 전에 준비하기로 선정한다. 프로그램은 협주곡과 바흐의 무반주 작품, 현대작품, 학교에서 지정하는 곡으로 정해진다. 지정곡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CNSMDP 리사이틀 지정곡

작곡가	곡명
- N. PAGANINI	Mouvement perpétuel
- P. de SARASATE	Zapateado opus 23 n° 2
- C. SIVORI	Etudes-caprices opus 25 n° 4
- C. SIVORI	Etudes-caprices opus 25 n° 11
- PI. TCHAIKOVSKI	Scherzo opus 42
- H. WIENIAWSKI	Etudes-caprices pour violon seul opus 10 n° 5
- H. WIENIAWSKI	Etudes-caprices pour violon seul opus 10 n° 6
- H. WIENIAWSKI	Scherzo-Tarentelle opus 16
- H.W. ERNST	6 études (une au choix)
- H.W. ERNST	Transcription pour violon « le Roi des aulnes » de Schubert

<표 7>의 지정곡을 보면 학생들의 기교와 음악성을 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는 mention Très Bien(최상), Bien(상), Assez Bien(중)으로 하며 판정단이 평가한다.

두 번째 리사이틀은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개 리사이틀이며 연주시간이 50분이 넘지 않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평가는 리사이틀의 콘셉트 및

연주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며 mention Très Bien(최상), Bien(상), Assez Bien(중)으로 한다.

(2) 오케스트라²⁶⁾ 수업

오케스트라 수업은 평균 주당 시간이 최대 3시간이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 합창파트 리허설, 전원 합주리허설과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러 음악회에 참여해야 한다. 오케스트라의 프로그램은 지휘자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다양한 지휘자가 초청되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3) 이 외의 수업

‘Méthodologie de recherche(연구방법론)’는 석사과정 중 첫 해에 3시간씩 12회 수업이 예정 되어 있다. 예술적 차원의 연구를 듣고, 내용을 분석하며 이것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과 규칙들을 깨닫도록 돕는다. 여기에는 참고서적이나 시청각자료의 활용, 연구 영역의 범위,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에 대한 연구, 참고자료의 정의, 여러 가지 형식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규칙들의 소개와 여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Travail d'étude personnel(개인 학습)’은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개인 학습 결과물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에 의해 정해진 예술 관련 주제에 대해 미디어 자료 혹은 오디오 자료 등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 수업은 석사과정의 두 번째 리사이틀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 사항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수업은 그룹 활동을 하여도 무관하다.

‘Aspects pratiques du metire(직업의 실용적 양상)’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알

26) 파리관현악단은 본래 파리음악원 관현악단에서 비롯되었다. 파리음악원 관현악단은 1828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의 지휘자 아브네크(François Habeneck)가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갔다. 당시 단원은 파리 음악원 교수와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7년 소설가 출신의 문화상 앙드레 말로(Andre Georges Malraux)는 악단의 체제를 확대하여 프랑스 음악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파리음악원 관현악단을 파리 관현악단으로 새롭게 개편했다(박용수, 2008: 185).

고 있어야 하는 법에 대한 기초지식의 전달과 후원인(예술후원)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청중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소개하는 법을 익히는 수업으로 세미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Initiation à la Pédagogie(교육학 입문)’는 교육학의 기본, 수업의 학술적인 분석, 프랑스 교육의 조직망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Langue vivante(외국어 수업)’는 석사과정 중 프랑스어 언어능력평가 B2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Mise en situation professionnelle(전문적 무대 진출)’은 학교의 교육 개요의 틀 내에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실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다.

3) 졸업요건

CNSMDP의 졸업을 위해서는 위의 교육과정에서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두 번의 리사이틀이 필수로 요구된다. 특히 두 번째 리사이틀이 졸업연주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4) 석사학위 외 개설된 학위과정

CNSMDP는 ‘1er cycle supérieur’, ‘2er cycle supérieur’, ‘3er cycle supérieur’, ‘Diplôme d'Artiste’로 학위과정을 정하고 있다. ‘3er cycle supérieur’과정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2er cycle supérieur’과정이나 석사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으며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졸업 후 박사(Doctorat)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Diplôme d'Artiste’라는 이름으로 전문 연주자 과정이 있으며 1년 또는 2년 동안 학업이 이루어진다.

3.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²⁷⁾

미국 동부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입학요건과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에 관하여 본 연구자는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규정과 2016~2017학년도 입학정보 등 최신의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겠다.

1) 입학요건

NEC의 석사학위과정인 ‘Master of Music’과정은 학사학위소지자, 학사학위 취득에 정자 혹은 공인된 대학으로부터의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지원자들은 영어로 기재된 공식 성적표와 함께 미국대학의 학위와 상응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한다.

(1) 입학서류

‘Master of Music’과정의 지원자들은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녹음, 에세이²⁸⁾, 음악 관련 이력서²⁹⁾, 공인영어성적³⁰⁾, 성적표, 2개의 추천서를 온라인 지원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성적표에는 과목의 이수여부, 이수한 날짜, 기재된 성적, 그리고 수강 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개의 추천서는 지원자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와 그 외에 또 다른 교수나 앙상블 감독이나 코치로부터 받아야 한다. NEC에 재학하고 있는 지원자 또한 이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27) 이하 ‘NEC’라 칭하겠음.

28) 에세이는 교육 및 자신의 직업 목표를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NEC에 대해 흥미롭게 느끼는 특징과 교육 혜택을 서술하여야 한다. 내용은 300-500단어 내에서 작성하며 온라인 신청서에 입력해야한다. 또한 굵게, 기울임 꼴, 밑줄, 들여 쓰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9) 이력서는 지원자의 예술성과 업적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원자가 지원한 프로그램 및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연구(기관, 날짜 및 학위 수여), 응용 및 개인 연구(연구자와 정확한 날짜 등), 실적, 수상 경력, 음악축제나 여름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주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년도의 지난 3년간 리사이틀이나 콘서트에서 연주 한 작품을 적어내어야 한다.

30) 최소 조건 TOEFL 79 iBT; IELTS 6.5

(2) 입학 실기 시험 곡

석사과정 바이올린전공의 경우 사전 오디션과 현장 오디션을 모두 치러야 한다.

① 사전 오디션(Prescreening Recording) 지정곡

1800부터 1945년 사이에 만들어진 협주곡(Concerto) 1악장과 J. S. Bach의 무반주 소나타(Sonata)나 파르티타(Partita) 중 2개 악장, N. Paganini Caprice op.1 중 1곡을 연주하여야 한다. 협주곡은 I. Stravinsky의 Concerto와 D. Shostakovich Concerto No. 1 in a minor 또한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D. Shostakovich의 곡을 선택하였을 시에는 4번째 카덴차를 연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 오디션(Live Auditions) 지정곡

1800부터 1945년 사이에 있는 만들어진 협주곡 전악장과 J. S. Bach의 무반주 소나타(Sonata)나 파르티타(Partita)의 작품, N. Paganini Caprice op.1 중 2곡을 외워서 연주 하여야 한다. 또한 선택한 협주곡과 시대가 다른 소나타(Sonata) 한곡도 연주 하여야 한다. 사전 오디션과 동일하게 I. Stravinsky와 D. Shostakovich Concerto No. 1 in a minor 또한 선택이 가능하다.

(3) 전공시험 이외 시험

실기 시험 이외의 시험은 없으나 입학 후 음악사와 음악이론에 관해 전반적인 평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이 평가에서 낙오하면 기초 음악사 수업과 기초 음악이론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수업들은 학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4) 합격자 선발 방법

실기 오디선의 성적이 입학여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입학 서류를 검토하여 학교에서 원하는 음악적, 학문적인 수준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2) 교육과정

NEC ‘Master of Music’ 교육과정의 핵심은 개인 레슨 수업이다. 레슨 수업은 리사이틀, 실내악 및 오케스트라 앙상블에서 여러 연주를 하도록 한다. 음악사를 포함한 이론 과정은 연주 레퍼토리에 대한 깊이와 이해를 제공한다. 교양 과목 커리큘럼은 음악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지적, 정치적 맥락뿐만 아니라 주요 학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NEC는 다른 음악원과는 다르게 ‘Academic Advising’을 두어 학생에게 학업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교과목의 선택과 수업의 목표달성, 학업의 어려움을 도와 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표 8>은 NEC ‘Master of Music’과정의 교과목 일람표 이다.

<표 8> NEC ‘Master of Music’의 교과목 일람표

Strings – Master of Music	credits
<i>Violin, Viola, Violoncello, Double Bass</i>	
Studio Str 500	16
Ensemble Orchestra	4
Musicology	2
Theoretical Studies	2
Musicology or Theoretical Studies Elective	2
Chamber Music Doble bass: CHMMUS or STR 530T	3
Electives	12
Recital	2
Total Credits	43

<표 8>교과목 일람표에 따르면 실기수업은 16학점으로 그 외에 오케스트라, 음악학, 이론적 연구, 음악학 또는 이론 연구 선택 과목, 실내악, 선택 과목, 독주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과목은 외국어 수업³¹⁾을 권장하고 있다.

(1) 전공실기

NEC는 매 학기 실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며 2학기 차에 실시된다. 이 시험을 ‘Promotional’이라 칭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4학기에 졸업연주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 곡은 교수와 학생이 상의해서 정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반주스텝을 학기에 정해진 시간만큼 쓸 수 있다.

(2) 오케스트라

NEC의 오케스트라는 연간 5회 이상의 공개 연주회와 오페라연주를 하며, 다양한 레퍼토리와 스타일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케스트라 수업은 ‘Hugh Wolff’와 NEC의 오케스트라 디렉터인 ‘Norma Jean Calderwood’, 오케스트라 부국장인 ‘David Loebel’의 지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현악 합주 수업도 이루어지며 ‘Donald Palma’가 이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 오케스트라의 단원과 지휘자와 함께 리허설과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Boston Symphony Orchestra)’³²⁾의 단원들과 지휘자의 수업이 이에 해당된다.

NEC는 BSO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1881년, BSO의 창시자인 Henry Higginson은 NEC의 교수 19명에게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함께 연주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이 관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BSO의 단원

31) NEC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외국어 수업을 교육과정에 제시하여 주당 4-5회 수업을 7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이 외국어 수업은 성악, 성악 교육, 피아노 반주, 합창 지휘,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며 현악과 같은 다른 전공 선택 과목으로 대신한다. 이 수업의 목적은 외국어의 일반 회화를 넘어 음악가로서의 외국어가 필요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연주의 리허설이나 성악전공의 경우 시나 노래의 텍스트에 대한 의미 이해의 심층적인 연구를 도와주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오디션이나 시험 응시를 할 때 학생들에게 잘 어울리는 언어로 시설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이하 ‘BSO’라고 칭하겠음.

중 절반은 NEC의 졸업생들과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그 외의 수업

전공실기와 오케스트라 이외에 실내악을 비롯한 실기수업이 있으며 이외에 여러 이론과목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이점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 존재하고 있다. NEC의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에는 2단계가 있으며 입학 시 토플 점수를 기준으로 수업 수준이 정해진다. 토플성적이 79점이 넘지 않으면 ‘intensive english’ 코스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코스는 입학 전 여름학기에 실시된다.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NEC의 수업이 아니라 외부기관의 수업이고, 79~87점 구간은 ESL³³⁾수업을 수강해야 하며 2학기동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88점이 넘는 학생은 ESL수업이 면제된다. ESL수업은 학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3) 졸업요건

NEC의 졸업을 위해서는 위의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전공필수과목, 선택과목의 이수 여부와 졸업연주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졸업연주는 한 시간 독주회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며 곡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졸업연주를 위한 필수 요건은 2학기 차에 실시되는 실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연주를 할 수 없다. 졸업연주는 pass/fail로 채점되어진다.

4) 석사학위 외 개설된 학위과정

NEC의 학위는 ‘Bachelor of Music’³⁴⁾, ‘Master of Music’³⁵⁾, ‘Graduate Diploma’³⁶⁾, ‘Artistic Diploma’³⁷⁾, ‘Doctor of Musical Arts’³⁸⁾가 있다.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

33)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34) 이하 ‘BM’이라 칭하겠음.

35) 이하 ‘MM’이라 칭하겠음.

36) 이하 ‘GD’라 칭하겠음.

(Harvard University) 이중학위³⁹⁾,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 이중학위가⁴⁰⁾ 있다. GD학위는 전문 연주자과정으로 불리며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MM과정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실기 과정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AD과정은 한국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으로 불리며 소수의 특별한 재능을 지닌 연주자에게 예술성을 심화시키고 도전하며 음악적 관점을 넓히고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위이다. AD과정 입학에 위한 전제 조건은 없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는 한 개 이상의 MM과정을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D와 GD과정은 모두 학업 요구사항이 없고 성과에 중점을 둔 대학원 프로그램이다. GD과정의 오디션 수준은 AD만큼 높지는 않지만 MM과정의 프로그램 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AD는 가장 선별된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지원자는 이미 많은 경력을 가진 연주자이거나 이 프로그램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지원자를 원한다.

DMA과정은 한국에선 박사학위로 불리고 소수의 학생만이 선발되며 석사학위를 소지하여야만 지원할 수 있다.

37) 이하 'AD'라 칭하겠음.

38) 이하 'DMA'이라 칭하겠음.

39) 이중학위(Doble degree)는 상호 협정을 맺은 양 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NEC와 Harvard University는 Harvard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NEC에서 음악석사학위를 취득 하는 공동 5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년 5~6 명의 학생들만이 합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두 학교에 모두 지원하여야 하며 모두 합격통보를 받아야 한다. Harvard에 3년간 수업을 들으며 NEC에서 악기 실기 수업을 받아야 하며 이후 NEC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

40) NEC는 Tufts University와 공동으로 5년간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은 NEC에서 음악학사 학위를, Tufts에서는 예술학사 또는 과학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Tufts는 이중 학위 학생들에게 음악과 공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은 각 학교에 모두 지원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생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입학허가 이후 학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CNSMDP는 어린나이의 학생을 선호하는 학교의 특성상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외국어 능력평가

각 음악원별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평가의 비교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외국어 능력평가 비교

학교명	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 없음
CNSMDP	• 입학시험 시 15분 정도의 프랑스어 인터뷰 • 입학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는 유럽공용외국어 등급표(CECRL)에서 적어도 B2 수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NEC	• 최소 조건 TOEFL 79 iBT; IELTS 6.5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외국어에 관한 능력을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⁴²⁾ CNSMDP에서는 입학시험 시 지원자의 동기를 파악하는 15분 정도의 인터뷰를 프랑스어로 하며 입학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B2수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EC에서는 GRE는 보지 않고 TOEFL점수나 IELTS등급이 필요하다.

(3) 전공 실기시험

각 음악원별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입학 실기시험 비교는 다음 <표 11>과 같다.

42) 외국인의 경우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지원할 때, 별도의 정해진 외국어능력평가 기준은 '예술전문사과정 정원 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모집요강'내용상 정해진 바가 없음.

<표 11> 전공 입학 실기시험 비교

학교명	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 J. S. Bach 무반주 Sonata, Partita 중 2악장(느린· 빠른 악장) • 협주곡 중 1곡 전 악장 (19세기 이후)
CNSMDP	• L.van Beethoven 협주곡, 단 Kreisler의 카덴차 포함 • 총 20분 정도의 스타일이 다른 곡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NEC	• 사전 오디션 가. 1800부터 1945년 사이에 있는 만들어진 협주곡 1악장 나. J. S. Bach 무반주 Sonata, Partita 중 2악장 다. N. Paganini Caprice 중 1곡
	• 현장 오디션 가. 1800부터 1945년 사이에 있는 만들어진 협주곡 전 악장 나. J. S. Bach 무반주 Sonata, Partita 중 1곡 다. N. Paganini Caprice 중 2곡 라. 선택한 협주곡과 시대가 다른 소나타 1곡

세 학교 모두의 공통점은 공개오디션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 학교 모두 협주곡 1곡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이점은 NEC에서는 사전 오디션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 본 실기시험이라 할 수 있는 라이브 오디션을 치를 수 있다. CNSMDP는 지정곡 이외에 총 2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4) 전공실기 이외의 시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공 실기시험 외에 음악이론과 음악분석 시험을 치러야 한다. NEC는 입학시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입학 후에 시창청음과 음악이론 시험을 추가로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능력별 클래스 편성을 위한 분반 시험용으로 보인다. 기준에 통과하면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한 합격자는 학점이 부과되지 않는 기초과정 수업

분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협주곡과 바흐의 무반주 작품, 현대작곡가의 작품과 학교에서 지정하는 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C에서는 2학기에 ‘Promotional’이라는 이름으로 2학기 차에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4학기에 졸업연주를 할 수 있다. NEC에서도 지도교수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한다. 이외에 세 학교 모두 실내악 수업을 실기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작곡과 학생의 작품을 연주하는 ‘창작곡 연주’라는 특이 과목이 존재한다.

(2) 전공 관련 이론수업

각 음악원별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관련 이론수업 비교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전공 관련 이론수업 비교

학교명	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 서양음악사 • 20세기 서양음악 • 음악분석 및 해석 • 논문 • 실내악문헌 세미나 • 관현악문헌 세미나
	• 이태리어 • 독일어 • 신체훈련 • 음악교육론 • 음악교수학습 방법
CNSMDP	• 연구방법론 • 개인학습 • 직업의 실용적 양상
	• 교육학 입문 • 외국어 수업 • 전문적 무대 진출
NEC	• 음악학 • 이론적 연구 • 음악학 또는 이론 연구 선택 • 선택과목 (외국어 권장)

43) 독주회 혹은 독창회

세 음악원 모두 다양한 이론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와 CNSMDP에서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또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세 음악원 모두 외국어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예술교육사⁴⁴⁾ 인정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3) 학위취득요건

세 학교 모두 학위 취득을 위해 논문작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의 수강과 학점취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36학점 이상, CNSMP는 120학점, NEC는 43학점이 필요하다. 학점취득 이외에 학위취득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졸업연주이다. 특히 NEC에서는 2학기에 실시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졸업연주를 할 수 있다. 세 학교 모두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주 전 사전평가는 없으며 1회의 연주를 통해 평가받는다.

4) 석사학위 외 개설된 학위과정

각 음악원의 석사학위 외 개설된 학위과정을 학사, 석사, 박사, 연주자과정, 그 외 기타 과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44) 문화 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2조 제 5항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김민정, 2017: 6).

<표 14> 석사학위 외 개설된 학위과정 비교

학교명	학사	석사	박사	연주자과정	기타
한국예술종합학교 (괄호내용은 영문학위명)	예술사 (Bachelor of Arts)	예술전문사 (Master of Arts)		예술전문사 3년 독주자 과정 (Artist Diploma)	예술전문사 3년 오케스트라 전공 (Artist Diploma)
CNSMDP	1er cycle supérieur	2er cycle supérieur	3er cycle supérieur	Diplôme d'Artiste	
NEC	Bachelor of Music	Master of Music	Doctor of Musical Arts	Artistic Diploma	Graduate Diploma

NEC가 가장 다양한 학위를 제공한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이외에도 ‘GD’학위 또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 터프츠 대학과 함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박사학위과정의 학위는 개설되지 않았으나 연주자 과정인 3년 독주자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그 외에 오케스트라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두 과정 모두 ‘AD’학위가 수여된다. CNSMDP는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학위명을 사용하며 학제 또한 다르다.

5) 비교분석 결과

앞에서 살펴본 3개의 음악원들은 공통적으로 실기과목에 학점과 학기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등 실기위주의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공실기, 오케스트라, 실내악에 가장 많은 학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매 학기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또한 매 학기마다 다양한 곡을 연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론과목 또한 실기과목을 보조해 주는 과목들 위주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기능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뛰어난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을 배출해낸 것에 이러한 교육과정이 바탕이 되었다고 본

다. CNSMDP가 다른 음악원과 달리 입학시험자격에 나이제한을 두는 이유는 어린나이의 학생이 실기능력 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자는 최근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는 한국인들의 출신학교를 관찰하던 중 상당수의 수상자가 국내외 음악원(Conservatory) 출신이라는 점을 발견한 후 이러한 음악원의 실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프랑스의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미국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선정하였으며 각 음악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 중 석사학위 바이올린전공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는 네 가지의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 ‘음악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음악원과 음악대학의 정의와 나라별 현황, 음악원과 음악대학의 차이, 나라별 음악고등교육기관의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각각의 음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각 음악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면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서 습득한 입학시험과정, 교육과정과 학위취득요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넷째,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음악원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나라의 음악원과 음악대학은 설립 목적이 차이가 있으며 교육내용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각 음악원마다 불리고 있는 석사학위 명칭에 다양하나 입학에 관한 자격 조건은 비슷하다. 각 음악원 모두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입학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은 어학성적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셋째, 공통적으로 전공실기수업과 오케스트라수업을 매우 중요시 하여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과목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각 음악원 모두 전공실기수업에 가장 많은 학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공실기 외에 실기 능력 향상

을 위한 다양한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미국과 프랑스의 음악원은 각 도시에 있는 다른 대학과 협업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많다.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은 파리4대학으로 불리는 소르본 대학과,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는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 터프츠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독자적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다섯째, 석사학위 이후 과정은 음악원마다 다르며 이에 따른 학위의 이름 또한 통일되지 않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전문사에 ‘독주자과정’, ‘오케스트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은 ‘3er cycle supérieur’, ‘Diplôme d'Artiste’라는 이름으로,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는 ‘Doctor of Musical Arts’, ‘Artistic Diploma’, ‘Graduate Diploma’라는 이름으로 학위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연구한 세 음악원의 석사학위 관련 입학과 교육과정, 학위취득과정 현황은 석사과정 진학을 앞두고 있는 후학들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고등교육기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6년 12월 12일 검색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음악대학,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6년 12월 15일 검색함.
- 김동준(2004). 전문음악인으로 발돋움하고 성장하기 위한 자극과 경험: 파리의 전문음악인 양성교육: 문화예술인 양성교육 어떻게 되고 있나: 양악(해외사례). **문화예술**, 297, 50-52.
- 김미숙(1997). **21세기 대학 음악교육의 방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 김민(1993). 유럽과 한국의 전문음악교육 현황: Europe vs Korea. **음악예술논단**, 2, 29-45.
- 김민정(2007). 미국 음대 유학준비 과정에 관한 조언. **음악교육신문**, 379, 34면.
- 김민정(2017).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봉렬(2015). **한국예술종합학교 요람**.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 김서진(1996). 음악고등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교육시장 개방 대응 방안 연구: 한국·미국·유럽의 주요음악대학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명(2009).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의 현행 입시지정곡에 대한 연구: 1997-2008년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개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6995&cid=4398&categoryId=4398#_datalab, 2017년 3월 23일 검색함.
- 노원정(2004). 피아노과 입시유형 분석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뉴스1(2016. 9. 23).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S20160920_001439875&dID=10701&pID=10700
가을은 바이올린 계절...무터·정경화·김남윤·피셔 물려온다. 2017년 2월 3일 검색함.
- 뉴스1(2016. 11. 17).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S20161117_0014522927&dID=10701&pID=10700

- 손열음·김선옥 스승' 김대진 "오늘의 나를 만든건 베토벤". 2017년 2월 4일 검색함.
- 다락원 유학부(2000). **21세기 미국 유학 사전**. 서울: 다락원.
- 대학정보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17년 3월 5일 검색함.
- 두산백과사전 소르본대학, http://www.dopedia.co.kr/dopedia/master/master.do?method=view&MS_IDX=10101300864073
2017년 2월 15일 검색함.
- 류연수(1996). 음악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음악원과 음악대학 및 음악과의 교육과정 비교·분석: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음악교육 현장에서 피아노과, 성악과의 예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홍신(2015). 한국과 중국의 대학 음악교육 시스템 비교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중국 상하이음악원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매일경제(2008.11.1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698849>,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롱티보 콩쿠르 국내파 우승. 2017년 2월 4일 검색함.
- 매일경제(2014.1.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4862>, 불
멸의 명곡 '사계' 빨간머리 사계 비발디. 2017년 2월 5일 검색함.
- 문혜영(2001). 한국·독일·미국 대학의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의 비교분석. 미발행 석사학
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은기(1997). 프랑스 대혁명의 음악사적 의의. **음악이론연구**, 2, 33-85.
- 박용수(2008). **파리에서 음악을 만나다(파리에서 만나는 서양음악사의 현장)**. 서울: 유
비.
- 박은정(2006). 한국과 미국 음악대학 오르간 전공 교육과정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은민(2005). 서울 소재 9개 음악대학의 교육과정 비교·연구: 서양 음악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영경(2008).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음악교육에 관한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성 연
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2014.11.9).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9>,
한국 대학에서 예술을 배운다는 것. 2017년 3월 2일 검색함.
- 소윤영(1993).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음악교육제도 비교 연구: 피아노 전
공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양은주(1992). 우리나라 고등음악교육기관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의 분석과 그 개선

- 방안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http://music.yonsei.ac.kr/index.asp>, 2016년 12월 15일 검색함.
- 연합뉴스(2015.5.31). <http://www.yhnews.co.kr/bulletin/2015/05/31/0200000044201505310070008HIML2rpt=1195m>
-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2017년 1월 5일 검색함.
- 오마이뉴스(2014.3.28).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74327,
- 바이올리니스트 민유경, 4월 예술의전당서 독주회. 2016년 12월 15일 검색함.
- 오지선(2003). **한국근대음악교육(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예술.
- 오현미(2003). 한국 음악 교육의 역사적 고찰: 국악과 서양음악의 교육방법에 대한 접근. **한국사상과 문화**, 22, 309-339.
- 원윤수, 류진현(2002). **프랑스의 고등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위키백과. 음악원.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95%85_%ED%95%99%EA%B5%90, 2017년 2월 3일 검색함.
- 윤희경(1987). 한국의 피아노 음악과 그 인맥. **피아노 음악**, 1987년 4월호, 49.
- 이데일리(2015.10.2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L51&newsid=01426806609535216&DCD=A405&OutLrkChk=Y>,
- 피아니스트 조성진, '韓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종합). 2017년 1월 3일 검색함.
- 이연경(1997). 미국 음악대학 교육제도 및 학부과정 교과과정 연구. **음악교육연구**, 16(1), 55-117.
- 이영애(2003). 지역 대학음악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유선(1985).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음악춘추사.
- 이은영(2002). 교육개혁방안에 의한 한국 음악대학의 특성적 학사제도에 대한 고찰.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창훈(2007). **미국 명문대학 확실히 알고가자**. 서울: 나무생각.
- 정해정(2000). 한국과 미국 음악대학에 있어서 전공의 다양성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과 미국 음악대학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통해.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효섭(2007). 개화기 기독교학교가 근대교육에 미친 영향.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시원(1991). 대학음악 교육의 점검. **중앙음악연구**, 2, 12-51.
-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http://www.coree.campusfrance.org>, 2016년 12월 15일

검색함.

한겨레(2006.9.24).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59563.html,
피아니스트 김선옥 리즈콩쿠르 우승. 2017년 1월 5일 검색함.

한겨레(2017.4.27).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92602.html#csidx8ea805eff90bf9fc5f44dca610d1>,
한반도 서양음악의 뿌리는 루터 종교개혁. 2017년 2월 7일 검색함.

한국경제(2014.9.1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462841>,
문태국,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 2017년 2월 3일 검색함.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서울: 동진문화사.

한국예술종합학교. http://knua.ac.kr/index_karts.jsp, 2016년 12월 15일 검색함.

한대호(2005).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입학제도의 비교연구: 바칼로레아와 수능능력시험
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홍승찬(2001). 소년의집 관현악단 그 사랑과 평화의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클럽
발코니**, 7(3), 82.

Bestcollegereviews. <http://www.bestcollegereviews.org/history-music-colleges-america>,
2017년 3월 13일 검색함.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http://www.conservatoiredeparis.fr>, 2016년 12월 15일 검색함.

Hoffer, C. R. (1983). **음악교육론(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안미자 역, 서
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NASM. <https://nasm.arts-accredit.org>, 2017년 1월 16일 검색함.

NEC. <http://necmusic.edu>, 2016년 12월 15일 검색함.

The best schools. <http://www.thebestschools.org/rankings/20-best-music-conservatories-u-s>,
2017년 3월 13일 검색함.